

## 엔딩 A [CIA 수사관]

미술관 앞의 희미하게 어두운 새벽녘 공원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자세히 눈을 부릅떠 보니,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그 노인과 【감정사】가 말 그대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너희는 달려서 현장으로 향한다.

CIA 수사관인 노인은 지팡이를 자유자재로 휘두르며 연속적인 타격을 가해 【감정사】를 몰아붙이고 있는 듯했다.  
노인이 겨누 지팡이 끝에서 칼날이 발사되었지만, 그것을 교묘히 피해낸 【감정사】는 순간적인 빈틈을 노려 노인의 턱에 오른손 스트레이트를 꽂아 넣었다!  
노인은 날아가 쓰레기장에 부딪히듯 쓰러진다.

다가온 너희를 알아챈 【감정사】는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 도주를 시도했다!

노인에게 달려가자 그는 말했다.  
“으으... 나이에 맞지 않게 무리할 짓은 아니었구먼.....  
내 걱정은 말고, 저 녀석을 쫓아라. 진짜 【렛테일】 같은 건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미 다 했고 말이야..... 아야야.”

너희는 생선뼈와 마시다 만 주스 때문에 끈적끈적해진 노인을 공원 벤치에 앉혀 놓고, 【감정사】의 뒤를 쫓았다.  
그의 신병 확보는 CIA가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다.

(이 PDF를 닫아 주세요.)